

# 부성 실천을 통해 본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중간 계층 아버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나 성 은\*\*

**국문초록** | 이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변화에 주목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 및 양육자로서 남성들이 부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하는 남성성은 성 평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 가능한지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30~40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아버지들의 생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성 실천 과정에서의 긴장을 드러내고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처음 아버지가 된 남성들은 출산하지 않은 몸이라는 제 3자적 위치를 자각하고,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체득하게 된다. 또한 아버지들은 ‘새로운 아버지’ 담론을 접하면서도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중심으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수용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아버지들은 친밀한 가족관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녀와의 신체적·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며, 배우자와 협력적인 부모노릇을 수행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관계지향성, 상호의존성과 같은 돌봄 가치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핵심어** | 돌보는 남성성, 부성, 생계부양자, 양육 참여, 부모노릇

\* 귀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羅聖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투고일 : 2015. 5. 2. 심사완료일 : 2015. 5. 28. 게재확정일 : 2015. 6. 8.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5.28.173>

## I. 서론

### 1. 문제제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미덕은 기존의 근대 사회에서 강조되었던 남성적 특질들과 대조적인 형태를 띤다. 지금까지 남성 역할에 대한 익숙한 묘사들은 적극성, 공격성, 경쟁 등과 같은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으며,<sup>1)</sup> 이러한 속성들은 남성성과 남성다움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근대 사회의 성별분업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해왔다. 불과 한 세대 이전의 아버지들은 엄격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재현되었으며,<sup>2)</sup>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계부양자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받았다.<sup>3)</sup> 반면, 최근의 가족 관계에서는 친밀성이 보다 중시되고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며, 이러한 경향은 대중매체 속의 자상하고 친근한 아버지 상<sup>4)</sup>과 결합하면서 남성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5)</sup>

서구 사회에서 이미 1960년대부터 자녀를 직접 돌보는 아버지들이 ‘새로

1) Goode, W. J., 『왜 남성들은 저항하는가?』, B. Thorne & M. Yalom(eds.), 권오주 외 역,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 1991.

2) 한경혜(1997)의 연구에서 당시 40대 남성들이 회고하는 아버지들은 ‘엄하고 무뎠다 하며’, ‘그저 혼나고 벌 받던 기억만 남아있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기억된다(한경혜, 『아버지 상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7).

3)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2003 ; 신경아,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0권 4호, 2014, 153~187쪽.

4) 그 단적인 예로 ‘친구 같은 아버지’의 등장을 들 수 있으며, ‘친구’와 ‘아버지’를 합성한 ‘프렌디(friendly : friend + daddy)’라는 신조어가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내준다.

5) 김미라,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masculinity)과 그 한계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2014, 88~96쪽 ; 이동욱, 『아버지 양육 담론의 한계와 대안적 부성 : 행복한 가족과 친구 같은 아버지를 넘어서』, 『젠더와 문화』 제7권 2호, 2014, 147~180쪽.

운 아버지'로 명명되었던 것<sup>6)</sup>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친구 같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중이다. 더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가족 구성의 변화와 맞물려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돌보는 아버지'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다.<sup>7)</sup> 아버지가 된 남성들은 자신의 원가족(源家族)에서 겪었던 경험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부성 역할을 인식하고,<sup>8)</sup> 그로부터의 반동 혹은 모방을 통해 부성 정체성을 구성해 나간다. 이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경제적 부양자인 동시에 양육자로서, 그리고 훈육자이자 역할 모델로서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지 고민하고, 그러한 바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면서 아버지가 되어간다.

새로운 부성 역할에 대한 강조는 한편으로 '돌보는 남성성(caring masculinities)<sup>9)</sup> 및 가족 내 권력관계 재편을 기대하게 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더딘 변화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의 우려<sup>10)</sup>를 낳고 있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2인 생계부양자 가구의 표준화<sup>11)</sup>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 모두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sup>12)</sup> 따라서 아버지들의 더딘 변화는 '돌보는 아버지'에 대한 요구가 갑작스럽게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의 경제력이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결국 이들이 주된 부양자 역할을 담당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노동자로서의 삶과 양육자로서의 삶에 어떻게 의미부여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주목하여, 부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경쟁과 위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세계와 이타적 돌봄 및 정서적 친밀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생활 사이에서 이 둘을 결합하려는 아버지들의 부성 실천 과정에서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근대 이후 '새로운 아버지'의 출현은 부성에 감정적 차원이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13)</sup> 하지만 오늘날 '좋은 아버지'의 요건에 친밀성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아버지'는 '좋은 생계부양자'일 때에도 가능하다.<sup>14)</sup> 아버지들은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를 '좋은 아버지'로 인식하기도 하며,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과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상호배타적이거나 중복된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다.<sup>15)</sup> 이와 관련하여 더모트<sup>16)</sup>는 경제적 차원과 분리된 채 친밀성을 논하는 것은

- 6) Pleck, J. H.,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M. Kimmel(ed.), *Changing Men: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Men and Masculinity*. Newbury Park: SAGE, 1987; Featherstone, B., *Contemporary Fathering: Theory, policy and practice*. Bristol: Policy Press, 2009.
- 7) 조혜정,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사회과학논집』 37권, 2006, 71~97쪽; 홍승아·이미화·김동기, 『유연근무제와 가족생활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8) 연은경·김영희,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관계와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권 3호, 2014, 509~527쪽.
- 9) Hanlon, N., *Masculinities, Care and Equality: Identity and Nurture in Men's Live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Elliott, K., "Caring Masculinities: Theorizing an Emerging Concept", *Men and Masculinities*, 2015 March, pp.1~20.
- 10) Segal, L., "Changing Men: Masculinities in Context", *Theory and Society*, 22, 1993, pp.625~641; Brandt, B. and Kvande, E., "Masculinity and child care: the reconstruction of fathering", *The Sociological Review*, 46(2), 1998, pp.293~313.
- 11) 이재경, 「가족의 미래와 정책패러다임 모색: 가족과 노동의 경계를 넘어서」,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정책적 대응』 토론회 자료집(2014.11.20.), 2014, 3~16쪽.

- 12) Ranson, G., "Men at Work: Change—or No Change?—in the Era of the 'New Father'", *Men and Masculinities*, 4(3), 2012, pp.3~26.
- 13) Dermott, E., *Inimite Fatherhood: a Sociological Analysis*. London: Routledge, 2008.
- 14) Marks, L. & Palkovitz, R., "American Fatherhood Types: The Good, the Bad, and the Uninterested", *Fathering* 2(2), 2004, pp.113~129.
- 15) Dowd, N. E., "Fatherhood and Equality: Reconfiguring Masculinities", *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45(4), 2012, pp.1048~1081.

착오라고 주장한다. 생계부양이 오늘날의 부성 논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남성의 가족 내 역할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충분한 돈을 번다는 것은 아이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오늘날 남성 실업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불안정성은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쇠퇴를 야기하면서 남성들로 하여금 남성다움에 대한 신념에 의문을 가지게 해준다.<sup>17)</sup> 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던 아버지들은 오늘날의 변화한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다움과 부성 역할이 무엇인지 재정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sup>18)</sup> 안정된 직장과 전통적 성별분업이 점차 의문시되면서 생계부양자로서의 지위가 불확실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부양자 역할이 부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아버지들의 갈등은 증폭된다. 오랫동안 남성의 주된 역할과 책임은 '좋은 부양자'에 집중되어 왔기에 오늘날의 아버지들에게 친밀성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부성에 관한 전통적 이상 역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으로 대표되는 아버지들의 돌봄 참여가 남성적 정체성과 어떻게 경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이우드와 매켄게일<sup>19)</sup>은 남성의 변화에 낙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전제하는 남성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아버지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새로운 아버지'에 관한 질문은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화되지 않았으며, 개인화된 아버지 남성성을 강조하는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단일한 남성성을 넘어 '복합적 정체성 형성에 의한 적극적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이동해야 하며, 그럴 때 아버지를 모순적인 사회적·감정적 주체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코넬<sup>20)</sup>에 따르면 헤게모니 남성성(hegemony masculinity)<sup>21)</sup>은 문화적 이상과 제도적 권력이 일치할 때 형성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조건이 변화되면 특정한 남성성이 지배하는 형태는 몰락하고 새로운 집단에 의한 새로운 헤게모니<sup>22)</sup>를 구성하게 된다. 즉, 남성들은 돌봄으로 인해 남성다움을 도전받을 때 오히려 이를 전유함으로써 새로운 헤게모니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헤게모니 구성과 관련하여 드미트리우<sup>23)</sup>는 남성성을 정교화, 적합화, 통합화하려는 시도에 의해 남성적 연합(masculine bloc)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남성성을 다양한 실천들로 결합된 혼종적

20) Connell, R. W., *Masculinities: Knowledge, Power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1995.

21) 코넬(R. W. Connell)은 그림시가 계급관계 분석에서 사용했던 '헤게모니(hegemony)' 개념을 차용하여 '헤게모니 남성성(hegemony masculinity)'을 개념화했는데, 이를 통해 남성 지배의 다차원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을 강조하고, 문화적으로 이상화된 형태로서의 헤게모니 남성성에 의해 젠더 위계가 작동되고 있음을 드러냈다(Connell, R. W., *Gender and Power*, Cambridge, UK: Pol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Blackwell Publishers, 1987; Connell, R. W., *The Men and the Bo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Connell, R. W., *Confronting Equality: gender, knowledge and global change*,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1; Connell, R. W. & Messerschmidt, J. W.,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and Society*, (19)6, 2005, pp.829~859).

22) '헤게모니'란 개인 생활과 문화적 과정의 구성에 작동하는 사회적 강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권위를 지칭한다(Connell, R. W., *ibid.*, 1987, p.184).

23) Demetriou, D. S., "Connell's concept of hegemonic masculinity: A critique", *Theory and Society*, 30, 2001, pp.337~361.

16) Dermott, E., "The 'Intimate Father': Defining Paternal Involvement",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8(4), 2003. URL: <http://www.socresonline.org.uk/8/4/dermott.html> (2013.9.15.).

17) Gerson, K., *No Mans' Land: Men's Changing Commitments to Family and Work*, New York: Basic Books, 1993.

18) Dowd, N. E., *The Man Question: Male Subordination and Privile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0.

19) Haywood, C. & Mac an Ghail, M., *Men and masculinities: theory, research and social practice*; Buckingham: Open University, 2003.

연합으로 개념화하면서, 따라서 '남성성의 부드러운 형태'는 여성 권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 권리의 침해를 은폐'한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 브란트와 크반데는 '남성적 돌봄(masculine care)' 개념을 제시하였다.<sup>24)</sup> 이들은 아버지의 돌봄이란 자녀와 함께 있어주거나 무엇을 함께 하는 것이 주를 이루며, 자녀에게 독립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자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자녀를 돌보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등한시 하는 맥락에 주목하여, 남성이 어떻게 돌봄을 '남성적인 것'으로 만드는지 탐색한다. 이들은 아버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돌봄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헤게모니 남성성의 내용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며, 이는 남성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가바나스<sup>25)</sup> 역시 가족 내 남성의 필요성을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우려한다. 그는 미국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히 이성애, 스포츠, 종교 안에서 부모노릇이 재젠더화되는(regendered) 양상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버지들의 부모노릇(parenting)이 남성적 형태로 구성됨으로써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오늘날 부성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남성화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비판적 태도와 달리,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입장은 한론<sup>26)</sup>과 엘리엇<sup>27)</sup>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한론에 따르면, 남성들은 신체적 통제, 공격성, 지배, 경쟁, 자율성, 독립, 위계, 감정적 거리감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남성성의 지배적 형태를 수행하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반면, 양육 참여와 같은 돌봄 실천은 여성적인 것으로 의미가 부여되며, 의존, 수동성,

여성성, 취약성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헤게모니 남성성과 대비를 이룬다. 하지만 돌봄과 지배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남성들은 타인을 돌보면 서도 지배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때문에 남성의 돌봄 실천 과정에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이 중요하며, 남성들은 돌봄 실천을 통해 감정적 친밀성을 경험하고 남성들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능력 있는', '자랑스러운', '도전받는', '즐거움', '환상적인', '행복한', '활기찬'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sup>28)</sup> 또한 돌봄을 실천하는 남성은 규율자, 교육자, 남성적 역할 모델, 보호자를 포함한 젠더화된 돌봄 개념을 넘어서, 돌봄을 받는 상대, 즉 자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기술을 체득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엘리엇은 '돌보는 남성성'의 핵심적 요소로서, 지배적 태도를 거부하고, 긍정적 감정, 상호의존, 관계성과 같은 돌봄 가치들을 삶에 통합하는 것을 든다. 돌보는 남성성은 보호와 같은 전통적인 남성적 가치를 재구성하는데, 예를 들어 '능숙함'은 '숙달'이 아니라 돌봄 '능력'을, '존중'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짝을 이루며, '책임'은 임금을 집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린 생명을 돌보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돌보는 남성성을 통해 헤게모니 남성성으로 인한 비용은 줄어들고 대신 돌봄으로 인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즉 돌봄은 남성의 삶을 감정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돌봄과 남성성 간의 역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로 인한 변화와 기대 효과에 주목하고,<sup>29)</sup>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일 중심

24) Brandt, B. and Kvande, E., *ibid.*, 1998.

25) Gavanas, A., "Domesticating Masculinity and Masculinizing Domesticity in Contemporary U.S. Fatherhood Politics", *Social Politics* 11(2), 2004, pp.247~266.

26) Hanlon, N., *ibid.*, 2012.

27) Elliott, K., *ibid.*, 2015.

28) Hanlon, N., *ibid.*, 2012, p.13.

29) 김미란, 『육아공동체』에서 부모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 가족에 의한 공동체의 형성과 경계들, 『교육사회학연구』 제18권 제3호, 2008, 19~60쪽; 조윤경,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돌봄의 의미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 성 인지 관점에서 본 남성 돌봄과 아버지됨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 김영두·이대균, 「초보 아버지들의 양육특성과 아버지 됨의 변화과정」,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2011, 353~380쪽.

적 사회 속에서 겪는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sup>30)</sup> 새롭게 등장한 부성 담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해왔다.<sup>31)</sup> 아버지들의 갈등적 상황 혹은 양육 참여로 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자녀 양육에 관한 아버지들의 현실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중심성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사회적 조건이 충족된다면 부모노릇을 둘러싼 젠더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남성들이 자녀 양육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남성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부모노릇에 내재한 여성과 남성 간의 젠더 역학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부성 담론에서 드러나는 한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 담론의 낭만성에 문제제기하고,<sup>32)</sup> 아버지 역할의 강조가 가부장적 권위의 회복으로 회귀할 위험성을 지적한다.<sup>33)</sup> 특히 이동옥은 새로운 부성 담론은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가족 이기주의와 배타적 돌봄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근대의 남성성이 여성적인 것의 배제를 통해 구성되어 왔다는 점<sup>34)</sup>을 감안할 때, 돌봄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전망은 남성들이 아버지 및 남편이라는 가족 내 지위를 바탕으로 어떻게 남성성을 변형시키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돌봄 실천 과정에 내재된 가부장적 복원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아버지라는 가족 내 지위와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적 태도에 주목하여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돌보는 남성성'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부성 형성 과정에 주목하기 위해,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아버지, 즉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는 돌봄 참여에 내재한 아버지들의 복합적 태도를 드러내고, 이러한 태도가 남성 자아 및 가족 관계 변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질적 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sup>35)</sup>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추천받은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표집(sampling strategically)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또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참관하여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기대하는 가족 내 위치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에 속하며, 한 명(<사례 5>)을 제외하고 모두 2인 생계부양자 가구에 해당되었다. 맞벌이라는 조건은 연구 참여자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모 역할의 분담을 위해 배우자와 협력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들은 2000년대 초·중반에 결혼하여 수도권에 거주하고

30) 서혜영·이숙현, 「남성의 일-아버지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권 2호, 1999, 257~280쪽; 김혜영·황정미·선보영·김동기,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홍승아 외, 앞의 책, 2011.

31) 이숙진, 「최근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착한' 가부장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2권, 2012, 209~237쪽; 이정희, 「아버지 신드롬, 어디로 가는 걸까?」, 『플랫폼』 통권40호, 2013, 32~39쪽; 이동옥, 앞의 논문, 2014.

32) 이정희, 앞의 논문, 2013; 이동옥, 앞의 논문, 2014.

33) 이숙진, 앞의 논문, 2012.

34) Connell, R. W., 앞의 책, 1995.

35) Mason, J., 김두섭 역,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 2010.

있으며, 계층 의식은 중간계층<sup>36)</sup>에 해당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들 중에서 미취학 아동들은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으며, <사례 1>, <사례 6>, <사례 8>의 자녀들은 주로 할머니에 의해 돌봐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사례	연령*	학력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자녀연령(성별)	주된 양육 책임자	비고
1	41세	대졸	사진기자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프리랜서)	6세(남), 3세(여)	장모	장모와 일시 동거
2	34세	대졸	중학교사	연구원 (대학)	2세(여)	부모 공동	
3	39세	대학원 수료(석)	고교교사	초등교사	10세(여), 6세(남)	배우자	
4	40세	대학원 수료(박)	대학 강사	대학 교직원	6세(남)	배우자	
5	37세	고졸	영업직	전업주부	8세(남)	배우자	
6	37세	대학원 졸(박)	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대학)	5세(남)	장모	장모가 양육 전담
7	44세	대졸	보험설계사	방문과외교사	16세(여), 15세(여), 7세(여)	배우자	아버지학교 수료
8	36세	대졸	사무직 (제조업)	컨설턴트	6세(여), 3세(남)	본인 어머니	어머니와 동거
9	43세	고졸	건설직	사무직	4세(여)	부모 공동	

\* 주: 연령은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함. 2012~2013년에 걸쳐 인터뷰가 시행되었으나 연령으로 인한 경험의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분하지 않음.

36) 연구 참여자의 계층적 지위에 대한 판단은 이들의 학력 및 소득 분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계층의식'과 '평등과 돌봄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두 가지에 기준에 따른 것이다(이재경, 앞의 책, 2003).

### Ⅲ. 아버지됨의 과정과 부성 역할의 수용

#### 1. 노력으로 체화되는 부성 정체성

자녀의 존재를 통해 남성은 아버지로 호명된다. 즉 남성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모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신체적으로 자녀와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남성이 자녀와의 첫 대면에서 스스로를 아버지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와 대면했을 때 보였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자녀를 보자마자 강력한 유대감을 느꼈다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 자녀 출생의 순간을 직접 지켜보면서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너무 얘기 때는 실감이 하나도 안 났어요. '내 애구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애기구나. 부모님들하고 주위 분들이 난리 났고, '예쁘다', '뽕았다'고 하는데, 그냥 애기구나. <사례 5, 37세, 영업직>

인용한 <사례 5>를 비롯하여 일부 아버지들은 태어난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내 아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주변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스스로 아버지임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느꼈다는 것이다. 아이와 대면하더라도 큰 감흥이 없을 뿐 아니라, TV나 영화를 통해 접했던, 막 태어난 핏덩이를 직접 받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모습이 전혀 연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미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임신이라는 사건을 접하게 될 경우 이는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으로 경험되기도 했다. 아래에 인용한 <사례 3>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아이를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낳으신 거네요?] 그렇죠. 운이 없었죠. [더 나중에 낳으실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생각이 전혀 없었죠. 한 3, 4년 있다가... 스물아홉에 결혼했으니까 전혀 생각이 없고, 둘이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인도 한 달만 갔다 올까, 둘이 제대로 한 번 갔다 와 보자. 항상 둘이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임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만큼 기쁘진 않더라고요. 저는 부성애가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여자는 있을 것 같아요. [모성애가요?] 예. 뱃속에 있었으니까, 안고 있었으니까. 남자는 아니거든요. [실감이 안 나셨어요?] 안 났죠.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남들은 이쁘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이쁘네. 번데기 새끼마냥 묶여 가지고 있는... 그런데 참... (키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사례 3, 39세, 고교교사>

<사례 3>은 아버지가 되었음을 알게 된 순간에 기대했던 만큼 기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획했던 여행이 취소될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서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한다. 아내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은 아버지가 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기쁜 경험일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이 배우자의 임신을 알게 된 순간이나 자녀와 처음 대면하는 순간에 자신을 아버지로 정체화하기란 쉽지 않다.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한 감흥은 이전에 비해 생활상의 제약이 많아질 것에 대한 염려와 아버지로서 새로운 책임이 요구된다는 무게감에 압도된다. 아버지들은 결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때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적인 존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혈연적 유대'를 강조하며 특별한 감정을 드러냈던 아버지들은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려왔거나 유산 등으로 낙담했던 경우가 해당되었다. <사례 4>는 유산으로 인해 임신 기간 내내 부부 모두 신경을 많이 썼던 사례이다. 그는 자녀 출생 당시 가족분만실을 신청하여 출산 과정에 동참하려다가

배우자의 몸 상태 악화로 취소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사례 4>가 자녀와 대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특별했던 것은 당연해 보인다.

아이 태어나는 거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처음 봤죠. 근데 다르더라고요. 제가 큰 누나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큰 누나가 넷째까지 있거든요. 셋째, 넷째 애들을 봤어요. 근데 개네들을 봤을 때는 징그럽고 좀 만지기 힘들다, 애 만져서 다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리고 빨게 가지고 징그럽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내 아이는 다르더라고요. 징그럽고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보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아이는 다르더라고요. 안게 되더라고요. <사례 4, 40세, 대학강사>

그는 이전에 누나들을 통해 출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신생아와 대면하는 일이 낯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받게 된 '무언가 다른 느낌'은 임신 기간 동안 아버지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한 시간들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진 감정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아버지로서의 삶에 대해 기대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쌓이면서 몸의 반응과 감정의 표출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례 4>는 아내의 건강 문제로 인해 임신 기간 동안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만큼 자녀의 출생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서부터 자녀의 존재에 대해 기대하고 염려하는 과정은 자녀가 태어난 이후 형성할 유대감 형성의 첫 단계를 이룬다. 최근의 출산 과정에는 아버지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sup>37)</sup>

37) 배우자의 분만 참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래로 점차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박미정·오현정·윤정희·김은실·이영희, 「배우자의 분만과정 참여에 대한 산모와 배우자의 태도 조사」, 『임상간호연구』 제18권 1호, 2012, 74~85쪽). 산모들은 분만 중 배우자와 함께 있고 싶기를 원하며, 배우자의 지지를 통해 산모의 상태불안

이는 부모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최초의 순간을 공유하려는 여성과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의 분만 과정에 동참했는데, 주로 배우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뱃속의 아이에게 태명(胎名)을 지어주고 태담(胎談)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아버지 역시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 아버지가 된 남성들은 자녀라는 존재를 향해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는<sup>38)</sup>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녀와 처음 대면했을 때 당혹감을 느끼는 아버지들은 이를 직접 출산하지 않는 제3자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감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고 태교 단계에서부터 정성을 기울였던 아버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출생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을 아버지로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성 정체성의 형성에서 사회적 구성성<sup>39)</sup>이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함을 반증해준다. 출산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모성을 경험하는 여성과 달리, 남성이 자신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아버지에게는 자녀와 신체적·정서적으로 가까워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다수 아버지들의 초기 양육 참여는 어머니를 '도외추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자녀 양육 초기에 어머니에게 집중되는 많은

역할들은 자녀를 돌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몫으로 할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양육 초기 부모의 젠더화된 몸을 둘러싼 문화적 기대,<sup>40)</sup> 즉 출산한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부모노릇에서의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이후 자녀 돌봄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한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중된 부모노릇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평등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2. 책임 있는 '노동자'로의 전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들이 자녀 출생으로 인해 아버지로서의 생물학적·법적 자격이 부여되자마자 스스로 아버지임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아버지가 된 남성들은 자녀와의 친밀성을 인식하기 이전에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느끼게 되며, 아버지됨의 경험은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아버지' 담론에서 굳이 논의되지 않는데, 부양자 역할은 이미 좋은 아버지의 조건으로 전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sup>41)</sup> 따라서 가족 부양에 대한 남성의 책임감은 결혼과 자녀 출생이라는 사건을 거치며 남편 및 아버지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며, 가족 내에서 남성의 위치를 설명하게 된다.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참여는 근대적 남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인 동시에 권력을 작동시키는 도구였다.<sup>42)</sup> 서구의 경우 핵가족의 황금기에

40) Lupton, D. & Barclay, L., *Constructing Fatherhood: discourses and experiences*, London: SAGE, 1997.

41) Coltrane, S., *Family Man: Housework and Gender Equ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Miller, T., *Making Sense of Fatherhood: Gender, Caring and Wor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42) Segal, L., *ibid.*, 1993; Hobson, B. & Morgan, D., "Introduction: making men into fathers", in B. Hobson(Ed.), *Making Men into Fathers: Men, Masculinities, and the Social*

감소, 통증 완화, 분만자신감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38) 이는 트론토가 말한 돌봄 과정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반응(caring about)이기도 하다. Tronto, J.,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아포리아, 2013.

39) Larshaw, B. A., "Is Fatherhood a Full-time Job? Mixed Methods Insights into Measuring Stay-at-Home Fathers," *Fathering* 9(2), 2011, pp.125~149.

남성성의 헤게모니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 여부에 좌우되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근대적 가족 내의 남성 지위 역시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었다. 가족 내 아버지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기제는 경제적 능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근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은 '성공한 남성', '성공한 아버지'를 기능하는 주된 척도로 자리잡아왔다.<sup>43)</sup>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남성들의 연령대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쳐 있는데,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던 1990년대 말에 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세대에 속한다. 대중매체 속에서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익숙하게 접하면서,<sup>44)</sup>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실직을 경험<sup>45)</sup>하게 되면서 이들의 직업 선택 과정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젊은 아버지들이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중시하는 맥락에는 이러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아들로 살아왔던 원(源)가족 내에서 부양자로서의 책임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남성들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일에 대한 태도와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는 자아의 이동을 경험한다. 결혼 이전의

삶이 개인적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결혼과 더불어 남성에게는 가족 내에서의 남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중심적 태도를 향한 급격한 선회는 결혼보다는 자녀 출생이 계기가 되고 있었다. <사례 9>는 수차례 대학입시에 실패한 후 20대 내내 특별한 직업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았던 경험이 있다. 그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집을 벗어나게 된 것은 대학입시에 실패한 탓도 있지만, 아버지와의 불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기억하는 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아들 셋을 키우는 역할을 전담했다고 한다. 특정한 직업 없이 집에 머무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히게 되면서 그는 집을 나와 10여 년을 떠돌게 되었고, 30대가 된 이후 고향에 돌아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태어난 아이와 처음으로 대면하면서부터이다.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자신의 나이 문제, 은퇴까지 남은 시간 등이 현실적 고민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낳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좀 많이 벌어서 놓을걸. 현실적인 그런 거... 여태 뒀나. (아이를) 40에 낳았는데. 가끔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죠. 재 대학가면 내가 환갑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현실적인 부담 같은 게 생겼죠. 예전에는 정말 자유롭게 놀고 그랬는데. 현실적인 걱정 같은 게 가장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사례 9, 43세, 건설직>

그가 자녀의 출생을 계기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된 것은, 불안정한 직업 지위가 남성성 자체에 반(反)하기보다는 부성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화되는 데 기인한다. 남성의 경제적 부양자 역할에 대한 인지는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그 방향이 일관된 것은 아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가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

*Politics of Fatherhood*, Cambridge, UK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43) 임인숙,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4권 4호, 2000, 1105~1127쪽 ; 백진아, 「기혼 남성의 부성과 가족 경험」, 『현상과 인식』 제33권 4호, 2009, 163~186쪽.

44) 『한국일보』, 「가장 체면 세워줘야 회사도 발전」, 1999. 5. 12. ; 『서울신문』, 「우리는 다시 일어셔야 합니다」, 2000. 12. 22. ; 『동아일보』, 「실직가장, 아 고달픈 삶이여!」, 2001. 4. 3. ; 『문화일보』, 「<가정을 바로 세우자>(4) 집나가는 사람들」, 2001. 5. 8. ; 『동아일보』, 「요즘 가장들은 / (上)갑원-디지털에 쫓기고 “아버지는 외롭다”」, 2001. 5. 26. ; 『국민일보』, 「노숙 막노동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식 “눈물의 父情”」, 2001. 9. 1. 등 이 시기에는 실직한 아버지들의 좌절과 눈물에 관한 기사들이 빈번하게 등장했다(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가온. www.mediagaon.or.kr).

45)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 <사례 5>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중동지역에 건설노동자로 취업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며, <사례 3>과 <사례 9>의 경우 아버지가 특정한 직업과 소득 없이 지내거나 생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었다고 한다.

이 자신은 좋은 부양자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띤다.

그런데 오늘날 가족 내에서 경제적 부양자 역할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중요하며,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가족 내 권리와 의무를 재편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경우, 새로운 부성 담론의 수용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지위가 유사하더라도, 가족 내 역할 분배를 설명하는 또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연령에 따른 위계, 젠더 차원이 개입되면서 여성과 남성 간의 자원 공유는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이는 가족 내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남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가족 구성원 간의 공평한 자원 공유에 대해 믿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과 '협력'으로 포장되며, 남성이 유일한 부양자이건, 맞벌이건, 여성이 주된 부양자이건 간에 관계없이 '가족의 이름으로' 젠더 갈등을 덮어버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남성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책임감은 배우자의 유급노동 중사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일례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sup>46)</sup> 빈번하게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보다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성으로 나타난다.<sup>47)</sup> <사례 8>의 경우를 보더라도 컨설턴트인 배우자의 소득이 훨씬 많지만, <사례 8>은 가족부양의 책임은 당장의 소득활동 여부나 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46)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40.0%는 비정규직인 반면,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6.6%인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DB.

47) <2013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 안정성과 관련하여 '매우 불안함' 또는 '약간 불안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61.9%, 여성 56.7%로 나타난다.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회조사> DB.

[다른 일을 계획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아직 없어요. 한 번 해보고 싶거든요. 내가 기획을 해가지고 뭔가 한 번 해보고 싶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월급쟁이로 한 나이 60, 남자 힘 빠질 때까지 일을 계속 한다는 거 자체는 참 불쌍하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불쌍한 일이지. 뭔가 다른 환경의 변화도 추구해 보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애들도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못 하는 게 되게 아쉽죠. (...) 다른 거 해보고 싶죠. 고정적인 수입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 쪽도 불안해요. 급여는 많은데, 거기도 컨설팅이고 하다보니까 여자가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남자처럼 60 다 될 때까지 일할 수 없을 거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사례 8, 36세, 사무직>

<사례 8>에 따르면, 현재 아내의 소득이 더 높더라도 아내는 남편인 자신을 믿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남편이자 아버지인 자신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양 책임으로 인해 새로운 일을 선택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공한 아버지되기에서 남성의 고용 상태가 중요하다<sup>48)</sup>는 근대적 부성과 모성에서의 책임을 성별에 따라 분리하는데 기여해왔다. 남성과 여성의 부모 역할과 책임에 대한 믿음은 현재적 상황뿐 아니라 미래의 선택에까지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맞벌이인 남성이 홀벌이 남성에 비해 생계부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신을 굳이 '가장'으로 명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성 스스로 '부양자' 정체성을 거부하기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리고 일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경제적 부양자로 기대되고 이를 내면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설령 남성 스스로 전업주부(専業主夫)가 되기를 선택하더라도 자녀를 돌보고 가사노동만 할 것이라 여겨지지

48) Townsend, N. W., *The Package Deal: Marriage, work, and fatherhood in men's live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2.

않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집밖의 일에만 몰두하면서 가족에게는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상(像)을 오늘날의 남성에게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노동에 매진하는 남성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신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책까지 출판한 아버지의 사례<sup>49)</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딸을 도맡아 키우면서도 이전에 종사하던 박물관 큐레이터 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며, 틈틈이 관련된 일들을 해왔다고 한다.<sup>50)</sup> 그는 언제든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계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동료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일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있었다.

즉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아버지'로만 설명하지 않으며, 아버지들은 아이를 돌보고 애정을 쏟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을 설명할 공적 영역에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아버지로서의 삶은 남성 정체성의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근대적 남성다움과 부성은 불화의 관계에 놓여 있는 듯하다. 근대적 남성다움은 일과 가족 영역 모두에서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가족 내에서 남성은 부양자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아버지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반면 오늘날의 부성은 권위적 가부장으로서가 아닌, 자녀를 직접 돌보는 아버지노릇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남성을 설명해야 하는 요소들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늘날 일과 가족 영역에서 아버지에게 기대되는 바가 상충되는 가운데,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가 남성 정체성과 어떻게 만나서 (부)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49) 박찬희, 『아빠를 키우는 아이』, 소나무, 2013.

50) 한 단체에서 주관한 저자와의 대화에서 참관하여 나는 대화 내용이다.

## IV. '돌봄'과 '남성성'의 이종(異種) 결합

### 1. 자기성찰을 통한 관계지향적 부성의 구체화

추상적으로 남성에게 부착되었던 부성 지위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된 상황에서 남성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적 부양 능력은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남성 지위를 설명하는 데 중시되었기에 아버지들은 이를 자연스럽게 부성에 부착시키지만, 가족 구성원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을 남성적 정체성에 담아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를 보면 이들의 친밀함에 대한 기억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들이 기억하는 자신의 어머니는 집밖에서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자녀들을 돌보고 친밀하게 지냈던 존재이다. 반면에 아버지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적·물리적으로 항상 동떨어진 존재로 기억되며,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 정진성의 연구<sup>51)</sup>에서 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생계부양의 능력이 없더라도 자녀들에게 정서적·양육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딸'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아버지들에게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과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 사이에는 교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딸은 부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열외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가부장적 권위를 인정받는 중요한 대상은 아들이 되며, 부성 지위를 가늠할 물적 기반이 불충분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을 더욱 억압적으로 대하기 쉽게 된다.

51) 정진성, 「한국사회 부성의 구조-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페미니즘연구』 제9권 1호, 2009, 79~111쪽.

전체적으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식당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가정을 돌보셨고, 아버님은 집에 계시는 게 많고 그랬으니까 (집에) 있을 때 괜히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때부터 제가 반항도 좀 했고. 그렇게 심하게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에는, 청소년기나 이럴 때에는. 지금은 늦게 절들어서... <사례 9, 43세, 건설직>

<사례 9>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청소년기부터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이 아버지가 된 후부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관계 개선이 어려울 듯 하다고 덧붙였다. 즉 아버지의 완고하고 일방적 태도로 인해 상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피상적 부자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어떻게 아버지노릇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아버지들의 고민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 상(像)이 없다는 아쉬움과, '좋은 아버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프렌디(friendly), 스칸디대디(scandi-daddy)<sup>52)</sup>와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어린 자녀와 젊은 아버지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 양육의 중요성을 다루거나 양육하는 아버지들을 위한 지침서들이 대거 출판되고 있으며,<sup>53)</sup> 아버지 교육이

52) 스칸디대디(scandi-daddy)란 북유럽(scandinavia)식 자녀교육법을 시행하는 자상한 아버지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53) 자녀를 돌보는 데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 증가는 아버지를 위한 양육 지침서들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다는 점으로도 확인된다(이강욱, 『젓병을 든 아빠,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 : 늦깎이 아빠 이강욱 교수의 육아에세이』, 돌베개, 2000 ; 스테판 B. 폴터, 『당신은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 21세기 아버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장경근·정채기, 『아버지가 나서면 딸의 인생이 바뀐다』, 황금부엉이, 2005 ; 김혜준, 『파더후드』, 지식기업 창과섬, 2011 ; 임정목, 『좋은 아버지 수업』, 좋은날들, 2012 ; 정우성, 『나는 아빠다』, 문학동네, 2013 ; 박찬희, 앞의 책, 2013).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상담기관 등에서 주목받는 부모교육 분야로 등장하는<sup>54)</sup>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무언 또는 유연의 압박을 받고 있다.<sup>55)</sup>

오늘날의 아버지들이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태도 변화야말로 '돌보는 남성성'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sup>56)</sup>에서 중요하며, 실제로 일부 아버지들은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한 예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아버지들, 그리고 자녀와 허물없이 지내는 부모가 되고 싶은 아버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sup>57)</sup>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례 7>의 소개로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참관할 수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국 각 지부를 통해 20여 년간 운영되어 온 대규모 프로그램으로서,<sup>58)</sup>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 위치 찾기'라는 목표<sup>59)</sup> 하에 아버지의 역할을 고민하고 가족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54) 『한겨레신문』, 「'아빠의 자격'을 공부하라」, 2012. 10. 29.(출처 : 한겨레신문 www.hani.co.kr).

55) 이동욱, 앞의 논문, 2014.

56) Elliott, K., 앞의 논문, 2015.

57)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보육센터 등에서 아버지 대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의 아버지 교육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각 홈페이지에는 해당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한겨레신문』, 「좋은 아빠가 되는 건 때론 버는 일」, 2012. 10. 29. ; 『베이비뉴스』,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신선하네」, 2013. 4. 16.

58) 해당 프로그램의 안내문을 보면 1996년 10월에 개설된 이래 2012년 12월 31일까지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에 걸쳐 총 4,215회 개설되어 약 247,451명이 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59) 전체 프로그램은 5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주 간은 각각의 세부 주제에 따라 5시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주에는 가족(주로 아내)들과 함께 수료식에 참석하여 세족식을 시행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하기 어려우며, 가족 내 아버지 지위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는 자칫 전통주의적 가족에 대한 향수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그러나 '회사 인간'<sup>60)</sup>으로 살아온 남성들에게 그동안 가족 내 위치를 점검할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은 남성들에게 성찰의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즉 경쟁, 업무 지향, 감정 억제 등과 같은 남성성의 익숙한 항목들<sup>61)</sup>에게서 한 발 떨어져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가족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관찰한 5주 간의 교육기간 동안 아버지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점차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가족에게 직접적인 애정 표현을 시도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아버지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sup>62)</sup> 오늘날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단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수고로움을 감수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신체적·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체득하고 권위적 태도를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버지가 된 남성들은 자신의 가족 내 지위가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부성 정체성은 특정 역할을 고수하기보다 자녀와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자녀와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적극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체득하고 있었다. 자녀와의 거리감을 줄이고 관계성을 회복하려는 아버

지들의 노력은 노동중심적 생활 구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녀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를 기꺼이 내려놓으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과 차별화된다.

## 2. 존중에 기반한 상호의존성의 제한적 수용

근대 이후 유급노동은 남성다움과 가족 내 남성 지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해 왔지만, 가족생활이 전적으로 남성의 노동과 경제적 부양에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1970~80년대에 40%에 이르렀고,<sup>63)</sup> 본 연구 참여자들의 절반 정도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유급노동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sup>64)</sup> 여성의 유급노동, 그 중에서도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유급노동에 종사했던 경우 자신의 아내는 전업주부이기를 바라거나(<사례 1>, <사례 5>),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가 전업주부였을 경우 아내가 일하기를 바라는 것(<사례 2>, <사례 6>)과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삶'을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에 속하는 <사례 5>는 '부모님이 맞벌이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싫어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일하는 어머니 대신 주변에 거주하는 친척들에 의해 돌봐졌는데, 따라서 '아내가 일하는 것이 싫으며'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60) Kimmel, M. S., 「남성은 무엇을 바라는가」, S. D. Friedman et al., 이상욱 역, 『회사와 개인생활의 조화』, 북21, 2002.

61) Connell, R. W., ibid., 1995.

62) '아빠와 함께 하는 스포츠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여행', '토요일봄 프로그램', '아빠의 사랑을 싣고' 등과 같이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이나 각종 요리 교실, 만들기 교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참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family.seoul.go.kr>).

63) 당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1970년 39.3%, 1975년 40.4%, 1980년 42.8%로서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인다(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조사> DB).

64) 1980년(이전 자료는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제시되지 않음)을 기준으로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을 보면, 30대의 경우 46.7%이고 40대 여성은 57.0%에 이른다(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조사> DB).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홀벌이로서 생계부양의 책임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어머니가 양육의 책임자라는 생각의 바탕을 이루며, 여성 배우자의 취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영된다. 남성에게 일을 할지의 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일을 중단하더라도 이는 또 다른 경력을 쌓기 위한 일시적 숨고르기 상태로 의미화된다. 반면에 아내가 일을 지속할지의 여부는 남편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어머니 상과 적절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에 관한 부부 간의 합의와 역할 수용 정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맞벌이인 연구 참여자들은 일하는 아내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취하거나, 아내의 소득이 자신의 생계부양자로서의 압박감에 대한 완충적 역할<sup>65)</sup>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아내의 직업과 경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배우자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아내에게 일을 하라 마라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자신이므로 일과 가족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만큼의 책임을 서로 나눠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와이프한테도 늘 얘기해요, 직장 그만 두지 말라고. 결혼할 때, 너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가족보다 더 중요시해야 된다, 꼭 지키라고 얘기 했어요. 내가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포기하는 거를 난 도저히 못 본다고. 왜냐면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헌신하는 거를. (...) 어머니도 꿈이 있고. 저는 그 삶을 봤기 때문에,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은 내 와이프로는 아니다. (...) 와이프한테 지금도 얘기해요. 우리가 둘째 생기고, 우리가 나름대로 위기가 올 수 있다. 포기하면

65) 연구 참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지만, 남성의 양육 참여는 2인 생계부양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현재적 생활수준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도 하다.

안 된다. 나는 네가 승승장구 직업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꿈을, 네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돈을 떠나서 네가 하는 거를 나는 원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공부한 거지, 잠깐 2, 3년 동안 네가 직장에 봉사하려고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위기 상황은 나름대로 찾아보면 해결이 있을 거다. 꼭 네가 직장 중단하는 거는 아니다. <사례 6, 37세, 연구원>

<사례 6>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헌신했던 모습을 거울삼아, 자신의 배우자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전담했던 어머니의 삶에서 자아가 빠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는 어머니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연구원으로서의 삶도 존중받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자신을 구분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그는 가족들에게 전권을 행사하던 아버지와 달리 배우자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합리적 남편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러한 '존중'의 서사는 남성다움을 향한 남성적 욕구의 간접적 재현으로 해석 가능하다. 오늘날 좋은 남편이라는 평판은 얼마나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지에 기반을 두게 됨으로써, 평등한 부부 관계를 지향하는 남성의 노력이 '존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돌보는 남성성'에 내재한 한계를 드러내준다. 아내의 직업 지위에 대한 배려가 남성의 직업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맞벌이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배우자 중에서 초기 양육기에 일을 중단했거나 시간제로 일했던 경우를 보면, 여성들이 어머니와 아내 역할에 전념하는 동안 일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이전 수준의 노동 지위를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즉, 부모가 된 이후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겪게 되는 생애경로의 분리는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자 지위를 지속시키고 부모 역할에서 어머니의 비중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례 2>의 경우에서처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는 태도는 남성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와 부모노릇의 평등한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었다. <사례 2>는 폭력적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좀 경제적으로 많이 곤란하셨잖아요? 항상 부부가 평등하려면 서로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와이프한테 일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가족이 균형이 맞춰져 있지. 한쪽으로 확 치우쳐져 있으면, 경제권을 갖는 사람과 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그 권력 차 때문에 가족이 오히려 붕괴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와이프한테 일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우리 딸이 안정적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건 충분히 우리 둘이 잘하면 커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걱정을 안 하고, 저는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례 2, 34세, 중학교사>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적 삶을 제공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정서적으로는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고 회고하면서, 부부 모두 경제적 주체이자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사례 2>는 전체 연구 참여자 중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배우자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가 보여주는 성찰적 태도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들이 직면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어떻게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는지 잘 보여준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sup>66)</sup>되었다고는 하지만, 부모 두 명이 전일제로

66) 사회적 돌봄 체계, 특히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일은 결코 수월해지지 않았다. 오늘날 대도시의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체제 하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삶을 희생할 것을 강요받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맞벌이인 부모들은 돌봄 노동의 비중을 줄이거나<sup>67)</sup> 친족 자원에 의존하는 실정에 처해있다.<sup>68)</sup> 때문에 '돌보는 남성성'에 대한 전망은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유연하게 부모노릇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 의미부여 함으로써 가능하다 할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양육 참여를 통해 자녀와 감정적 유대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부모로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아버지가 되어 간다. 남성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일상을 재편하려는 구체적 노력과 개입 속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은 불완전하게나마 '돌보는 남성성'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반을 이루며, '돌봄'과 '남성성'이 어색한 조합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해준다.

## V. 결론

이 연구는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어떻게 부성 역할을 수용하고 '돌보는 아버지'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남성이 아버지가 되는 과정은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며,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것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이다(최미옥,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정책학회 2012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665~683쪽).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재편되어 보육 업무를 포괄하기 시작하면서 보육 관련 정책과 제도적 방안들이 확대되는 데 힘이 실어졌다.

67) 박기남, 「전문직 여성의 노동경험과 돌봄의 젠더화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7권 2호, 2007, 83~124쪽.

68) 연구 참여자 중에서 <사례 1>, <사례 6>, <사례 8>은 장모나 본인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을 구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즉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강력한 신체적 유대로 인해 아버지들이 느끼게 되는 신체적·심리적 거리감은, 그만큼 아버지들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위치성은 부모 역할에 대한 인지와 부모노릇을 불균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며, 직접적으로 돌봄에 참여하기보다 안정적인 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결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성 역할을 수용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젊은 아버지들은 의식적으로 '가장'임을 내세우지 않지만, 여전히 부양자 역할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부모노릇을 둘러싼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부모노릇 수행에서의 '평등'이 자녀를 위한 모든 태도와 행동에 대한 획일적 구분짓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녀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부모 간에 서로 합의하고 각자 특정한 일을 맡게 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평등한 관계로 판단 가능하기 때문이다.<sup>69)</sup> 그러나 부모노릇에 대한 평등의 기준이 남성적 이해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한 젠더 갈등은 완화되기 어렵다. 남성의 입장에 기반을 둔 '공평함'은 부양자 역할을 더욱 중시함으로써 강력한 생계부양자<sup>70)</sup>가 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는 돕는 수준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날 '새로운 아버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보편화된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상당 부분 어머니의 요구에서 비롯되며 현실적인 필요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돌봄에의 개입은 아버지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받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이 다양한 역할 요구에 직면하고 대응하면서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계지향성, 상호의존성과 같은 여성적 가치를 점진적으로 남성 정체성에 흡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간 계층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추후 지역적·계층적 범주를 확장한 부성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동시장 조건 및 친족 지원과 같은 요인들이 부성 실천에 어떻게 개입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69) Deutsch, F. M., *Halving It All : How equally shared parenting works*, Cambridge, MA : Harvard, 1999.

70) 강력한 생계부양자란 더 많은 소득활동을 통해 가족 생계에 기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성별 위계적인 부모 역할 속에서 더 많은 소득을 지향하는 남성들은 이직을 감행하거나 부업을 통해 가구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 참고문헌

- Kim Mira [Kim, M. R., 김미라], “TV Maechee Jaehyeondoer saeroun namseongseong(masculinity)gwa geu hangye—jumal yeneung programeul jungsimuro [New Types of Masculinity Represented in TV and Its Limitations : Focusing on Weekend Variety Programs, TV매체에 재현된 새로운 남성성 (masculinity)과 그 한계—주말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Hanguk contents hakhoe nonmunji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 2014, 88~96.
- Kim Miran [Kim, M. R., 김미란], “Yugagongdongche’eseo bumochamyewui ganeungseonggwa hangye: gajogeuihan gongdongcheui hyeongseonggwa gyeonggyedeul [The parent participation in ‘Cooperative Childcare’ in Korea, ‘육아공동체’에서 부모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 가족에 의한 공동체의 형성과 경계들]”, *Gyoyuk-saohak-yeongu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교육사회학연구]* 18-3, 2008, 19~60.
- Kim Yeongdu, Lee Daekyun [Kim, Y. D. & Lee, D. K., 김영두·이대균], “Chobo abeojideului yangyukteukseonggwa abejidoemui byeonhwa gwajeong [The Parenting Characteristics of Inexperienced Father and the Process of Becoming Father, 초보 아버지들의 양육특성과 아버지 됨의 변화과정]”, *arini munhakgyok yeongu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2011, 353~380.
- Kim Hyeyeong, Hwang Jeongmi, Seon Boyeong, Kim Donggi [김혜영·황정미·선보영·김동기], *Namseongui busong gyeonghaengwa galdeung-ui gwanhan yeongu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Hanguk yeoseong jeongchack yeonguw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Kim Hyejun [김혜준], *Fatherhood [파더후드]*, Jisik-gieop Changgwasae [지식기업 창과샘], 2011.
- Park Ginam [Park, K. N., 박기남], “jeonmunjik yeoseongui nodonggyeongheomgwa dolbomui Gender-hwa : 1980nyeondaereul jungsimuro [Work Experiences of Professional Women and Feminization of Care Work, 전문직 여성의 노동경험과 돌봄의 젠더화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Feminism yeongu [Issues in Feminism, 페미니즘 연구]* 7-2, 2007, 83~124.
- Park Mijung, Oh Hyeonjeong, Yun Jeonghee, Kim Eunsil, Lee Yeonghee [Park, M. J., Oh, H. J., Yun, J. H., Kim, E. S., & Yi, Y. H., 박미정·오현정·윤정희·김은실·이영희], “Baeujai bunmangwajeong chamyeye daehan sanmowa baeujai taedo josa [Attitudes of Wives and Husbands to the Husband's Presence during Labor and Delivery, 배우자의 분만과정 참여에 대한 산모와 배우자의 태도 조사]”, *Imxang ganho yeongu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임상간호연구]* 18-1, 2012, 74~85.
- Park Chanhee [박찬희], *Abbarul kiwunaeun ai [아빠를 키우는 아이]*, Sonamu [소나무], 2013.
- Paik Jin-Ah [Paik, J. A., 백진아], “Gihon namseong-ui buseonggwa gajok gyeongheom [Fatherhood and Family Experiences of Married men in Korea, 기혼 남성의 부성과 가족 경험]”, *Hyeonsang gwa Insik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 현상과 인식]* 33-4, 2009, 163~186.
- Seo Hyeyeong, Lee Sukhyun [Seo, H. Y. & Lee, S. H., 서혜영·이숙현], “Namseongui il—abeoji galdeunggwa bumoo yeokhal manjokdo mit bumorseoui yuneungam [The Relations of Work-Father Role Conflict with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남성의 일—아버지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Hanguk gajokgwangyehakhoeji [Journal of Family Relations,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999, 257~280.
- Shin Kyeong-Ah [Shin, K. A., 신경아], “Sinjayusidae namseong saenggyebuyangjausikui gyunyeolgwa gender gwangyeui byeonhwa [The Changes in Male Breadwinner Consciousness and Its Implications for Gender Relation in Korean Family,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Hanguk yeoseonghak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한국여성학]* 30-4, 2014, 153~187.
- Yeon Eunkeyeong, Kim yeonghee [Yeon, E. K. & Kim, Y. H., 연은경·김영희], “Abeojui wongajok bumogwangyewa bubugwangye-ga janyeowai gwangye-e michineun yeonghyang [The Effects of the Parental and Marital Relationships on the

- Father-Child Relationship,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관계와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Hanguk gajokbokjihak*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한국가족복지학] 19-3, 2014, 509~527.
- Lee Gang-Ok [이강옥], *jeotbyeong-ail deun abba, aiwa hankke kauneun iyagi : neut-kkak-i abba Lee Gang-Ok gyo-su-ui yuga essay* [젓병을 든 아빠,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 : 늦깎이 아빠 이강옥 교수의 육아에세이], Dolbegae [돌베개], 2000.
- Lee Dong-Ok [Lee, D. O., 이동옥], “Abeoji yangyuk damronui hangyewa daeanjeok buseong : haengbokhan gajokgwa chingu-gateun abeojirul neomeoseo [The Limitations of Paternal Involvement Discourses and Alternative Fatherhood : Beyond Happy Family and Friendly Father, 아버지 양육 담론의 한계와 대안적 부성 : 행복한 가족과 친구 같은 아버지를 넘어서]”, *gender-wa munhwa* [*Gender and Culture*, 젠더와 문화] 7-2, 2014, 147~180.
- Lee Sukjin [Lee, S. J., 이숙진], “Choegeun Hanguk gidokgyoui abeoji damrone daehan bipanjeok seongchal, ‘chakan’ gabujangjuireul jungsimeuro [Critical Reflection on the Father Discourses in Contemporary Korean Protestantism : Focusing on ‘Good’ Patriarchism, 최근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착한’ 가부장주의를 중심으로]”, *jonggyomunhwabipyeng* [*Critical Review of Religion and Culture*, 종교문화비평], 22, 2012, 209~237.
- Lee Jaekyeong [이재경], “Gajokui miraewa jeongchaek paradigm mosaek : gajokgwa nodong-ui gyenggye-reul neomeoseo [가족의 미래와 정책패러다임 모색 : 가족과 노동의 경계를 넘어서]”, ‘2030nyeon gajok mirae scenario-wa jeongchaekjuk daeun’ *toronhoe jaryojip* (2014.11.20.) [‘2030년 가족미래 시나리오와 정책적 대응’ 토론회 자료집(2014.11.20.)], 2014, 3~16.
- Lee Jaekyeong [이재경], *Gajokui iramuro : Hanguk gaundae gajokgwa feminism* [가족의 이름으로 :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Ddo hana-ui munhwa [또 하나의 문화], 2003.
- Lee JeongHee [이정희], *Abaji syndrom; axiro ganeun geokka?* [아버지 신드롬, 어디로 가는 걸까?], *Platform* [플랫폼] 40, 2013, 32~39.
- Lim Insuk [Lim, I. S., 임인숙], “gyeongjewigiga nampyeonui gwonwi sangsilgam-e michineun yeonghyang [The Effects of Economic Crisis on Husbands' Sense of Authority Loss,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Hanguksahohak* [*Korean Journal of Sociology*, 한국사회학] 34-4, 2000, 1105~1127.
- Lim Jeongmuk [임정묵], *jeon abaji suap* [좋은 아버지 수업], joeun-naldeul [좋은날들], 2012.
- Jang Gyeonggeun, Jeong Chaegi [장경근·정채기], *Abajiga naseomyeon ddalui insaeng-i bakkuinda* [아버지가 나서면 딸의 인생이 바뀐다], hwanggeum bucong-i [황금부엉이], 2005.
- Jeong Wuseong [정우성], *Nanaun abbada* [나는 아빠다], munhakdongne [문학동네], 2013.
- Chung Chinseong [Chung, C. S., 정진성], “Hanguk sahoe buseong-ui gujo - ddaldeuli gieokhaneun abeoji [Structure of Fatherhood in Korean Society, 한국사회 부성의 구조 - 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feminism yeongu* [*Issues in Feminism*, 페미니즘연구] 9-1, 2009, 79~111.
- Cho Yunkyeong [조윤경], “hyeopdongjohaphyung gongdong yuga-e chamyehon abeojideului dolbomui uimihwawa gajokgwangyeui byeonhwa : seong injigwanjeomeseo bon namseong dolbomgwa abeojidoemui jaeguseong-el jungsimero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에 참여한 아버지들의 돌봄의 의미화와 가족관계의 변화 : 성 인지 관점에서 본 남성 돌봄과 아버지됨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Goryeodaehakgyo daehakwon baksahag-ui cheonggu nonmun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0.
- Cho Hyejeong [Cho, H. J., 조혜정], “Hugi geundaejeok wigiwa dolbom gukgajeok paradigm jeonhwan-el wihan siron [Gender Policy, Social Care and the Crisis of Modern Korea: Reconstructing the Society from Women's Experience and Perspectives,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sahagwahak nonjip* [*Social Science Review*, 사회과학논집] 37, 2006, 71~97.
- Choi Miok [최미옥], “Boyukjiwonjeongchaekui hyeunhwanggwa jeonmang [보육지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Hanguk jeongchaek hakhoe 2012 hagebulpyeonmunzip* [한국 정책학회 2012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664~683.

- Han Gyeonghye [한경혜], "Abeoji sang-ui byeonhwa [아버지 상의 변화]", Yeoseong Hanguk sahoeyeonguhoe(pyeon) [여성한국사회학회(편)], *Namsenggwahanguk sahoe* [남성과 한국사회], Sahoemunhwa yeonguso [사회문화연구소], 1997.
- Hong seung-ah, Lee Mihwa, Kim Donggi [홍승아·이미화·김동기], *yuyeongeunmajewa gajok saenghwalui byeonhwa* [유연근무제와 가족생활의 변화], Hanguk yeoseong jeongchaek yeonguw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Brandt, B. and Kvande, E., "Masculinity and child care : the reconstruction of fathering", *The Sociological Review*, 46(2), 1998, pp.293~313.
- Coltrane, S., *Family Man : Housework and Gender Equity*, NY :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Connell, R. W. & Messerschmidt, J. W., "Hegemonic Masculinity :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and Society*, (19)6, 2005, pp.829~859.
- Connell, R. W., *Confronting Equality : gender, knowledge and global change*, Cambridge, UK : Polity Press, 2011.
- Connell, R. W., *Gender and Power*, Cambridge, UK : Pol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Blackwell Publishers, 1987.
- Connell, R. W., *Masculinities : Knowledge, Power and Social Change*, Cambridge : Polity Press, 1995.
- Connell, R. W., *The Men and the Boy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Demetriou, D. S., "Connell's concept of hegemonic masculinity : A critique", *Theory and Society*, 30, 2001, pp.337~361.
- Dermott, E., "The 'Intimate Father' : Defining Paternal Involvement",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8(4), 2003. URL : <http://www.socresonline.org.uk/8/4/dermott.html> (2013.9.15.).
- Dermott, E., *Intimate Fatherhood : a Sociological Analysis*, London : Routledge, 2008.
- Deutsch, F. M., *Halving It All : How equally shared parenting works*, Cambridge, MA : Harvard, 1999.
- Dowd, N. E., "Fatherhood and Equality : Reconfiguring Masculinities", *Suffolk University*

- Law Review*, 45(4), 2012, pp.1048~1081.
- Dowd, N. E., *The Man Question : Male Subordination and Privilege*,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0.
- Elliott, K., "Caring Masculinities : Theorizing an Emerging Concept", *Men and Masculinities*, 2015 March, pp.1~20.
- Featherstone, B., *Contemporary Fathering : Theory, policy and practice*, Bristol : Policy Press, 2009.
- Gavanas, A., "Domesticating Masculinity and Masculinizing Domesticity in Contemporary U.S. Fatherhood Politics", *Social Politics*, 11(2), 2004, pp.247~266.
- Gerson, K., *No Mans' Land : Men's Changing Commitments to Family and Work*, New York : Basic Books, 1993.
- Goode, W. J., "Wae namseongdeuleun jeohanghaneunga? [왜 남성들은 저항하는가?], B. Thorne & M. Yalom(eds.), Kwon O-ju oe yeok [권오주 외 역], *feninismui sigakseo bon gajok*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Hanwul [한울], 1991.
- Hanlon, N., *Masculinities, Care and Equality : Identity and Nurture in Men's Lives*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ire ;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2.
- Haywood, C. & Mac an Ghail, M., *Men and masculinities : theory, research and social practice* Buckingham : Open University, 2003.
- Hobson, B. & Morgan, D., "Introduction : making men into fathers", in B. Hobson(Ed.), *Making Men into Fathers : Men, Masculinities, and the Social Politics of Fatherhood* Cambridge, UK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kimmel, M. S., "Nameungeun mueoseul baraneunga [남성은 무엇을 바라는가]", S. D. Friedman et al., Lee Sang Wok yeok [이상욱 역], *hosaewa gaensaenghwalui johwa* [회사와 개인생활의 조화], buk21 [북21], 2002.
- Latshaw, B. A., "Is Fatherhood a Full-time Job? Mixed Methods Insights into Measuring Stay-at-Home Fathers," *Fathering*, 9(2), 2011, pp.125~149.
- Lupton, D. & Barclay, L., *Constructing Fatherhood : discourses and experiences*, London : SAGE, 1997.
- Marks, L. & Palkovitz, R., "American Fatherhood Types : The Good, the Bad, and the Uninterested", *Fathering* 2(2), 2004, pp.113~129.

- Mason, J., *Jiljak yangubanghapron* [질적 연구방법론], Kim Duseop [김두섭 역], Namam [나남], 2010.
- Miller, T., *Making Sense of Fatherhood : Gender, Caring and Wor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Paulter, S., *Dangsinaun adalege cockleon abajijnikka? : 21segi abajihak* [당신은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입니까? : 21세기 아버지학], Lee Wongi yeok [이원기 역], Hangukbangsongtongsindachakgyochulpanbu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Pleck, J. H.,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M. Kimmel(Ed.), *Changing Men :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Men and Masculinity*, Newbury Park : SAGE, 1987.
- Ranson, G., "Men at Work : Change—or No Change?—in the Era of the 'New Father'", *Men and Masculinities*, 4(3), 2012, pp.3~26.
- Segal, L., "Changing Men : Masculinities in Context", *Theory and Society*, 22, 1993, pp.625~641.
- Townsend, N. W., *The Package Deal : Marriage, work, and fatherhood in men's lives*,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2002.
- Tronto, J., *Dd̄om minjujuui* [돌봄 민주주의], Kim Heegang·Na Sangwon yeok [김희강·나상원 역], Aporia [아포리아], 2013.

## \*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family.seoul.go.kr>

Seoul teukbyeol-si Geongangjiwon Center <http://family.seoul.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Tonggyecheong Gukgatonggye Portal <http://kosis.kr>

한겨레 신문 [www.hani.co.kr](http://www.hani.co.kr)

Hangyere Sinmun [www.hani.co.kr](http://www.hani.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가온 [www.mediagaon.or.kr](http://www.mediagaon.or.kr)

Hanguk Eonronjinheungjaedan Media Gaon [www.mediagaon.or.kr](http://www.mediagaon.or.kr)

## Abstract

THE POSSIBILITY OF *Caring Masculinities* IN THE PRACTICE OF FATHERHOOD—FOCUSING ON FATHERS IN THE MIDDLE CLASS—

NA, SUNG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differentiated roles of fathers in current Korean society, investigate the process of conflict and adaptation that fathers do fathering as a worker and carer, and analyze their masculinity with a gender perspective. With the in-depth interviews to fathers in 30-40s who care for their child(ren) actively,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tension arising from fathering and explai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caring masculinities*. At first, fathers come to realize their status as a third party due to the physical distance, and then find the necessity of effort and time for developing the bond between the child(ren) and themselves. In addition, fathers have a tendency to accept the parental responsibilities mainly with the breadwinner role, even though they encounter 'New Father' discourse. Nowadays, however, fathers try to fill up the gap between their child(ren) and themselves physically and emotionally, and also embrace the care value such as relationship or interdependency by co-parenting with their partner even though it is incomplete. Despite the limitations inherent in fathers' parenting, the reflexive attitude of caring fathers raises the expectations for the possibility of *caring masculinities*.

Key Word : *Caring masculinities*, Fatherhood, Bread-winner, Care Involvement, Parenting